

좋은 땅, 곧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

6/17 월요일

아침의 누리

골 1:12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벧전 2:9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이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 3:14

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 8:7-10

7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8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9 그대는 그 땅에서 모자람 없이 떡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며, 그 땅에 있는 산에서는 구리를 캐 수 있을 것입니다.

10 그대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좋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분을 찬송할 것입니다.

빌 1:19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할당된 몫'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할당받은 것처럼(수 14:1), 성도들이 받은 유업의 한 몫을 가리킨다. 신약의 믿는 이들이 받은 유업, 곧 그들이 할당받은 몫은 물질적인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 신성한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다.(골 1:12 각주 2)

신명기 8 장 7 절부터 9 절까지에 언급된 좋은 땅의 풍성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넘치는 공급이 되시는(빌 1:19)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엡 3:8)의 여러 방면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그들을 이집트로 상징된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좋은 땅으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의 풍성을 누리므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성을 건축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므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총만이고 그분의 표현이며(엡 1:22-23), 또한 하나님의 처소이고(엡 2:21-22, 딤펫전 3:15) 하나님의

왕국이다(마 16:18-19, 롬 14:17).(신 8:7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성경은 빛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 믿는 이들, 교회와 관련이 있음을 계시한다.

하나님 한 분만이 빛의 근원이다(비교 요일 1:5).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는 이들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을 근원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다.

시편 119 편 105 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130 절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으므로 빛이다. ...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빛이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빛의 비춤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므로 그리스도 또한 빛이다. 그리스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 장 5 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 사회 즉 인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일반적으로 빛이 아니시라 구체적으로 인간 사회 즉 인류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빛이다(요 1:4). ...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빛이 되고 우리 위에 빛을 비추며 우리 안에서부터 빛을 밝히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또한 빛이다(마 5:14). 빌립보서 2 장 15 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난다'고 말한다. 발광체는 자신 안에 어떤 빛도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근원에서 오는 빛을 반사한다. ... 우리 자신

안에는 빛이 없다. ... 우리의 빛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요한계시록 1 장 20 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금등잔대, 즉 타오르는 등을 붙잡아 주고 지탱하는 등잔대임을 본다. 등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빛이시다(21:23). 우주 안에는 하나님 자신인 단 하나의 빛만이 존재한다. 삼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이시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맛보았다. 우리는 깊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누림직한 분이신지를 깨달았다. 이후에 ...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서 빛나가 길을 잃고 멀어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내적으로 맛보는 것에서 돌아서서 종교적인 의무로 떨어졌다. 그때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끌려갔고, 내적인 빛 비춤은 중단되었다. ... 어느 날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제쳐 두고 주님께 돌이켜 그분을 향해 부르짖었다. ... 주님께 돌이킴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둠에서 빛으로 되돌아왔다. 그때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했다.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68-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시 119:105, 130

105 ᄃ(눈)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130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요 8:12

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9:5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 5:14

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빌 2:15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계 1:20

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분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빛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빛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조차 우리는 어둠 안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임재 밖에 있을 수 있다. ... 성경을 합당하게 읽는 방법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뿐 아니라 추구하는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는 것이다. ... 성경을 읽을 때 영을 사용하여 기도로 읽으면서 주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몫이 되신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7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하여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 ... 어둠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몫이 되실 수 없다. 그분은 다만 우리의 유월절이 되실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기 위해서도 우리의 회개와 자백이 필요하다.

논쟁할 때 내 자신이 어둠 속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히 논쟁할 수 없다. 나는 어둠의 위협 때문에 매번 말을 중단해야만 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자아를 표현한 것에 대해 그분께 용서를 구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자백하면 빛은 돌아오고, 나는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빛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안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실지적으로 성도들의 몫이 되신다.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요일 1:7).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장할 수 있지만, 빛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

6/18 화요일

아침의 누림

요일 1:5

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 2:5

5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무나 참되시고 진실하시며 솔직하시고 실지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신언자 이사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종교로 점유되어 있었지만 정작 주님의 빛은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성전과 제사장 직분과 제물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들은 빛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들에게, 돌아와 주님의 빛 안에서 행하자고 외쳤다(사 2:5). 이것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도록 회개하고 자백하라는 부름이었다.

시편 36 편 8 절과 9 절은 주님께 돌아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고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신다. 그는 주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알게 되고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이 빛 안에서 성도들의 뭉은 그의 누림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생명의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요 8:12). 그럴 때 우리는 빛 안에서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다(엡 5:14).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접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주님과 교통하며 내적인 기름바름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실지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은 빛이다. 우리가 내적인 기름바름을 따른다면 빛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참되게 교통함으로써 빛 안으로 인도된다. 교통 안에는 빛의 비춤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 머물고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과 집회 안에서 우리가 빛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자주 깊은 속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며 우리의 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느낀다. 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며 성도들의 뭉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73-7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6

6/19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골 2:7, 19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엡 3:17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마 6:6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엡 2:20-22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건축은 뿌리를 내리는 것에 달려 있다. ...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풍성하고 비옥한 토양이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으므로(골 2:7),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양 공급을 우리 안으로 흡수하여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해야 한다. 부드러운 뿌리인 우리는 하루 종일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흡수해야 한다. 이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로 흠뻑 적셔지고 유기적으로 그분으로 대치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건축되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작지라고 말한다(고전 3:9).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는 “나는 심었고...”라고 말한다. ... 하나님은 참농부이시고, 바울은 그분의 동역자들 중 한 명이었다(고후 6:1).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바울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심었다. 그리스도는 토양이다. ... 바울의 복음 전파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심어졌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514-51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더해지실수록, 그분은 더 많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성장도 있을 수 없다. 몸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시고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자라게 하신다.

잘 알려진 찬송은 우리에게 “거룩해지기 위해 시간을 들이라”라고 권유한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흡수하는 것이다. 날마다 시간을 들여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동화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할 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서두른다면, 그분의 풍성을 많이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 시간을 넉넉히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의 용어가 아니며, 경배의 대상에 불과한 분도 아니시다. 그분은 참되시고 풍성하시며 실질을 지니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흡수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흡수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그분을 흡수하기 위해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든다. ...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대신에 영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자유롭게 말씀드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그분과 교통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풍성을 흡수할 것이며, 그분은 그분 자신을 더 많이 여러분 안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더해지실수록,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자랄 것이다.

여러분이 이미 풍성한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위안을 받고 격려를 얻을 것이다. ...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풍성한 토양을 생각해 보라. 이 토양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 할례 받게 하는

것, 장사 지내는 것, 일으키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 규례들이 적힌 증서를 지워 버린 것, 어둠의 권세자들을 벗긴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와 실패와 약함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시간을 들여 주님을 누리라. ... 만일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님을 흡수해야 한다. ... 만일 여러분이 아침에 삼십 분을 들여 그분을 흡수하고 누린다면, 여러분은 그날 온종일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 이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에서 돌이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 드리고, 영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자.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경배합니다. 당신을 앙망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마음과 오늘 하루에 관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접촉할 때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천천히 시간을 더 많이 들일수록 더 좋다. 여러분이 주님을 접촉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토양의 풍성을 자신 안으로 흡수할 것이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515-516 쪽, 메시지 53, 528-52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6/20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골 2:9-10

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10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골 2:11-15

11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12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13 허물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워 버리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15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엡 3:8, 19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 장 7 절에서 ‘이미 뿌리를 내렸고’라는 표현은 토양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이어지는 8 절부터 15 절까지는 우리가 뿌리를 내린 토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묘사이다. 이미 토양 안에 뿌리를 내렸으므로, 우리는 토양에서 흡수하는 요소들로 자란다. 우리는

토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

매우 특별한 이 토양의 첫 번째 방면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발견된다. ...신격의 모든 총만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분 안에 뿌리를 내렸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첫 번째로 발생하는 일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총만해지는 것이다(골 2:10). ... '총만해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완전함과 온전함과 만족과 완전한 성취를 함축한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채워지고,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완전한 공급을 받는다. ... 토양의 첫 번째 요소는 신격의 총만이다. 토양에서 풍성한 영양공급을 우리 존재 안으로 흡수할 때, 우리는 이 총만을 누린다. 그런 다음 이 총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워지고, 완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며,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진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3, 521, 52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 이 총만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의와 의롭다 함과 거룩함과 거룩하게 함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이 총만 안으로 심어졌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것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흡수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체험이 이 총만 안에 있다. ... 그리스도는 우리가 뿌리를 내린 좋은 땅이므로, 우리는 이 총만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총만 안에서 우리는 총만해졌고 완전해졌으며 온전해졌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 우리는 육체와 규례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연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좋은 땅 안에 뿌리를 내렸으므로 그 총만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며, 긍정적인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광대한 이 총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높이 올려진 인성을 얻으며,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을 얻는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필요한가? 생명은 이 총만 안에서 발견된다. 여러분에게 사랑이나 인내가 필요한가? 그것들 역시 이 총만 안에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고, 침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골 2:11-12). ...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들이 적혀 있는 증서가 지워졌으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벗겨졌다(2:14-15).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은 우리가 뿌리를 내린 풍성한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요소들이다. 이 토양의 첫 번째 요소는 신격의 총만이다. 다른 요소들은 할례를 받음과 장사됨과 일으켜짐과 규례들을 지움과 어둠의 권세자들을 벗겨 냄을 포함한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할례의 요소를 얻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죽이는 능력이 있다. 이 죽이는 요소는 소금에 비유될 수 있다. 소금이 토양에 더해질 때 그것은 부패를 죽일 수 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린 좋은 땅의 토양 안에는 할례라는 '소금'이 있다. 이 요소는 무언가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죽인다. 그것은 육체를 잘라 내고 죽인다.

죽음당한 후에 우리는 장사된다. ... 더 나아가, 우리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이처럼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소들은 먼저 우리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일으킨다.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고, 장사되며, 일으켜지고, 생명을 받는다. 죽이는 것과 장사 지내는 것은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반면, 일으키는 것은 우리를 부정적인 것들에서 이끌어 낸다. 그런 다음 토양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그러므로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죽이고 장사 지내며 일으키고 살아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3, 524-526 쪽, 메시지 57, 560-56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3, 55-57

6/21 금요일

아침의 누림

요 8:12

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 10:10b-11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히 7:25-26

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26 이와 같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들보다 높아지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신 분이십니다.

계 1:5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사 9:6

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사 42:1

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한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고 그는 정의를 민족들에게 가져오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요 1:1) ... 요한복음 1 장에서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신 것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자. 디모데전서 2 장 5 절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한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실 뿐 아니라 또한 진정한 사람입니다.(스트림, 1 권, 영문판, 558, 56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신언자’입니다. 사도행전 3 장 22 절과 23 절은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신언자이심을 말해 준다. 신언자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 관해 우리를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무언가를 말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신언자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조연자’입니다. 이 항목은 이사야서 9 장 6 절에서 언급되는데, 이 절에서 그리스도는 ‘조연자’라고 불리신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조연자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우리의 조연자로 삼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조연자입니다. ...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올바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분은 기쁨바름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인도자’입니다. ...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종’입니다. ... 한 면에서 그분은 주인이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분은 종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섬기신다. 그분은 주인이실 뿐

아니라 종이시다. 이러한 방면은 이사야서 42 장 1 절에서 발견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8 장 6 절은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이시라고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중재하여 모든 것을 타결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담보자’입니다. 히브리서 7 장 22 절에서 우리는 그분 자신이 담보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정하신 것들에 대한 보증이심을 본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그분께서 보증이시자 담보자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요한복음 3 장 29 절은 그분께서 신부를 얻으려고 오신 신랑이심을 보여 준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 장 2 절에서 그분은 남편입니다.(스트림, 1 권, 영문판, 562-563 쪽)

그리스도는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이시며 모든 누림입니다. ... 요한복음 8 장 12 절은 그분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음식입니다. 요한복음 6 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살아 있는 떡이시며, 사람이 그분을 먹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51, 57 하절). ... 고린도전서 10 장 4 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음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음료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숨입니다. 요한복음 20 장 22 절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숨으로 불어 넣으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매 순간 그분을 숨으로 들이쉬어야 한다. ...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의 옷이다. 갈라디아서 3 장 27 절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으로 입는 것이다. ...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거처 곧 거할 곳이다(요 15:7 상). ...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누림과 안식이다(골 2:16-17, 마 11:28). 골로새서 2 장 16 절과 17 절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의 음식과 음료와 명절과 초하룻날과 안식일이다. 그분은 모든 그림자의 실체, 즉 우주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재이다.(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18 장, 208-21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스트림, 1 권, 영문판, 234-239, 558-570 쪽

6/22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24, 30

24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골 3:10-16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신성한 공급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표하신 것을 수행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전 1:24 상). ...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1:24 하, 30 하). 매일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흘러오셔서 우리의 체험에서 현재의 실지적인 지혜가 되셔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다(고전 1:30 하). ...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고 항상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사신다.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의 거룩하게 함이다(고전 1:30 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변화를 산출하는 요소이심을 의미한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안에 더해져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산출하는 요소를 가질 수 없다. 고린도전서 1 장 30 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의 구속, 즉 우리 몸의 구속이다(롬 8:23). 우리의 구속이신 분이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빌 3:21).(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18 장, 210-21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다(골 1:18). 그리스도는 ... 또한 머리의 몸이다(고전 12:12).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머리이시며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다(고전 3:11). 교회의 살아 있는 기초로서 그분은하나님의 건축물의 각 부분을 붙잡아 주고 지탱하시며, 또한 각 부분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엡 2:20). 하나님의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신 그분은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함께 연결하신다.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골 3:10-11). 이것은 그분께서 새사람의 모든 지체이시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심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사람의 모든 지체가 되실 수 있는지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이것은 누가 사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자신에 의해 스스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 교회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와 같아야 한다.(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18 장, 211-213 쪽)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포함한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능력 있으신 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이다(I Am)' 곧 '나는 -이다'이다(I Am Who I Am)'를 의미한다(출 3:14). '있다(to be)'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현재를 가리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나는 -이다'이다', 곧 지금 현재에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으며, 미래에 그리고 영원 안에 영원히 계실 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미래까지 그분은 '나는 -이다'이시다. ...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나는 -이다'이심을 알아야 하며,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그분을 믿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시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금액란이 빈칸인 채로 있는 서명된 수표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적어 넣어도 된다. 우리에게 일 달러가 필요하다면 일 달러라고 기입하면 된다. ... 십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다만 그 금액을 적으면 된다. 이 수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그것이 되신다. 우리에게 빛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거룩함이나 의가 필요한가? 예수님 자신이 빛과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발견된다. 이 놀라운 이름은 얼마나 높고도 풍성한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6, 94-9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1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2

찬송: 510 (英) 나는 우주의 보화 얻었네 (中:388)

- 3 내- 주는 생-명나무라 낙-원에 심-겼네
그- 실과 날 만족케 해 참 풍성 공급해.
- 4 내- 주는 매-맞은 반석 생-수 강 흐-르네
내- 안에 생명 샘 되어 내 갈증 해결해.
- 6 내- 주는 내- 지혜, 능력, 내- 자랑, 나-의 의,
내- 승리, 나의 구속과 나의 진리, 성결.
- 7 내- 주는 내- 구주, 목자, 내- 주님, 변-호자,
내- 상담자요 아버지, 형님, 친구, 사랑.
- 8 내- 주는 내 대장, 경호인, 내- 교사, 안-내자,
내- 신랑, 주인, 내 머리, 내 안에 판결해.
- 9 내- 주는 통-찰력 있는 신-언자, 권-능 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
- 10 내- 주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내- 중보, 보증이시오 신실한 참 증인.
- 11 내- 주는 내 영원한 가정, 모-든 것 충분한 땅,
내- 요새, 망대, 은신처, 내 영원한 터전.

6/23 주일

아침의 누림

갈 3:6-14

- 6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 7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 8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 9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 10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11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12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